

# 다산포럼

이승우



재벌 회장님의 보복 폭행 사건이 마침내 경찰 수뇌부의 웃을 벗겨 만드는 모양이다. 유치원생도 아니고 스무 살이 넘는 아들이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몇 대 맞았다고 조폭까지 동원하여 납치하고 폭행하고 전기봉으로 위협하고, 아들에게 맞은 만큼 때리라고 시키고, 그리고는 그 추한 사건을 덮기 위해 경찰 조직에 집요한 로비를 벌인 이 해괴한 사건의 주인공은 열 손가락 안에 든다는 재벌 회장님이다. 아들이 고소할까요? 하고 물었다니 그러지 말고 납자답게 직접 가서 보복하라고 지시했다는 말을 듣고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납자답게라니? 이 회장님께서는 싸움은 하면 안 되고, 납을 때리는 것은 나쁜 일이며,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반드시 법을 지켜야 한다고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이 땅의 수많은 평범한, '납자답지 못한' 아버지들을 모욕했다. 거기다가 그의 '납자다운' 그런 행동이 돈과 권력을 과도하게 소유한 데 따른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은 이 땅의 평범한 아버지들의 가르침이 돈과 권력을 갖지 못한 자의 비겁, 말하자면 '노예의 윤리'에 지나지

않은 것일지 모른다는 자괴감을 심어줄 여지도 있다.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것은, 당사자도 그 비슷한 변명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분의 행동이 납다른 부성에의 표현으로 의의되어 전해지기도 한다는

##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을 능력

것이다. 이 역시 정상적이고 올바른 부성을 가진 아버지들을 조롱하는 말로 들린다. 그렇게 하지 않거나 못한 사람들의 부성에는, 이를테면 최소한 그 깊이에 대해서,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부성애가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절대 선인 것도 아니다. 아버지에게 자식이란 철저히 타자일 수가 없다. 오히려 자기의 일부, 혹은 '연장된 자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부성애를 포함한 가족애란 다만 확장된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은 것이 된다. 우리는 진정한 가족애와 확장된 이기주의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 회장님이 보여준 것은 이

기주의(특권의식과 결합된)의 극치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아들에게 목사직을 세습하는 일부 대형 교회의 목사들이나 국민 정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역구를 넘겨주는 식으로 아들을 국회의원 만드는 정치인의 행태가 크게 보이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들의 부성애는 그릇된 것이고, 실은 그 회장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옹졸한 특권의식과 치졸한 이기주의의 부산물일 뿐이다.

특권의식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고 싶은 문제가 하나 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

이 생각하고 나서 마음껏 그 능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생각까지 은연중에 유포된 것 같다. 그 능력을 옳은 일에 사용하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그러나 뇌물 받을 자리에 있는 사람은 뇌물 받고, 투기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투기하고, 법을 무시해도 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법을 무시한다. 보복 폭행을 하고, 조폭을 동원하고, 경찰을 매수하려고 한 회장님의 행동은 아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아주 조금 사용한 예에 속할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쉽지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조금 더 쉬울 것이다. 더구나 능력만을 추구해온 그동안의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그 일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지금은 이 능력, 자기가 가진 능력을 옳은 일에만 사용하고, 옳지 않은 일에는 사용하지 않을 능력을 키우려는 것이, 특히 무언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 같다. 가령 돌로 떡을 만들 능력이 있다면 돌로 떡을 만들었으면 안 된다면, 저 광야의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돌로 떡을 만들 능력을 기꺼이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조선대 교수·소설가·다산연구소 제6)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설

## ‘문화수도 조성위’ 기능 강화 여론 수용하라

광주·전남 25개 시·군·자치단체로 구성된 광주문화도시협의회는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위원회와 추진단의 기능 강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문화중심도시사업과 관련, 현재 절체절명의 현안은 새로운 조성위의 복원과 추진단의 체제개편이다”며 “조성위의 역할을 강화하고 추진단에 민간 전문가를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추진주체의 난맥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조성위는 법정종합계획을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는 기관이지만 하부조직 하나 없는 유명무실한 존재였다. 이 같은 비정상적인 조직체계가 4년 동안 지속되면서 추진기획단과 사사건건 충돌해왔고, 조성위의 역할 강화를 요구했던 위원장이 사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조성위원회마저 동반 사퇴해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문화산업 도시를 만들겠다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문화전당의 콘텐츠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문화 및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하기 그지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성위조차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어 조성사업 자체에 대한 회의론까지 나오고 있다.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최대 현안은 광주문화도시협의회가 밝혔듯이 새로운 조성위가 하루빨리 구성돼 추진주체로서 확고한 위상을 갖추는 일이다. 조성위가 명실상부한 심의·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기능 강화부터 이뤄져야 한다. 지금과 같이 문화관광부의 하부조직처럼 운영돼선 또다시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 조성위의 기능을 강화하고 추진단에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라는 지역여론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 한국영화 가능성 확인한 ‘전도연 패거’

이창동 감독의 ‘밀양(密陽)’에서 열연한 전도연씨가 세계 최고 권위의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우리나라 배우가 3대 영화제(칸·베를린·베니스)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것은 지난 1987년 김수현씨가 ‘씨받이’로 베니스 영화제에서 수상한 이후 20년만의 일이다. 영화계는 물론 국민적 경사가 아닐 수 없다.

영화 ‘밀양’은 심사결과가 발표되기 전부터 세계적 언론과 평론가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들은 전도연씨의 연기를 높이 평가하며 유력 수상 후보자로 거론했다. 전씨는 한국 여성 특유의 혼신을 다한 열정과 빼어난 연기로 여우주연상의 영광을 안은 것이다.

전씨는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배우로 부상했다. 해외 진출 경험이 전혀 없는 전씨가 칸 영화제에서 최고의 영예를 안은 것은 한국영화의 가능성을 세계에 확인시켜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영화도 잘 만들면 세계무대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영화는 요즘 미국 할리우드 영화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3일 전국에서 개봉된 ‘밀양’의 관객은 27일까지 40여만명에 불과했다. 개봉 이틀만에 100만명을 돌파한 ‘캐리비안의 해적’이나 2주동안 400여만명을 끌어모은 ‘스파이더맨 3’ 등과 비교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다.

5·18광주민중항쟁을 소재로 다뤄 관심을 끌고 있는 ‘화려한 휴가’의 개봉 시점을 5월이 아닌 7월에 잡은 것도 안타깝다. ‘5·18주간’에 맞춰 개봉하는 것이 관객 동원에 훨씬 유리하지만 제작사가 할리우드 대작에 맞설 엄두를 못내 개봉일을 늦추었다고 한다.

영화계는 ‘밀양’에서 활로를 찾아야 한다. 탄탄한 시나리오와 감독의 창의적 연출, 배우의 열정 등이 합쳐지면 관객을 몰리게 돼 있다. 전도연씨의 이번 패거가 국산영화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 無等鼓

한국 프로야구팬에 새버림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SK 와이번스의 이만수 코치가 마침내 약속을 지켰다. 인천 문학경기장이 관중으로 가득 차면 팬티만 입고 그라운드를 돌겠다고 팬들에게 선언한 뒤 지난 26일 만원관중이 몰려들자, 과감히 벗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운동장을 돌았다. 20대 아들이 창피하다며 그만 좀 하라고 만류하고 아내도 말에서 벗었다.

프로축구 FC서울의 터키 출신 감독 세를 귀네슈도 침체된 한국 프로축구팬에 참신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에 오자마자 ‘축구는 쇼’, ‘축구는 전정’이라며 팬들을 위한 공격축구로

는데 그중 팬들에 대해서는 극진한 태도를 요구한다. 그는 경기에 지면 죄송하다고 팬들에게 사과한다. 경기에 저속이 상했다며 언론의 공식인터뷰를 기피한 선수에게 프로답게 행동하라며 심안한 뒤 지난 26일 만원관중이 몰려들자, 과감히 벗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운동장을 돌았다. 20대 아들이 창피하다며 그만 좀 하라고 만류하고 아내도 말에서 벗었다.

그들은 과연 이만수 열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수원 삼성을 라이벌로 정하고 끊임없이 입씨름을 벌이면서 팬들의 관심을 끌어 올리고 있다. ‘귀네슈 효과’인지, 지난 4월 8일 서울 수원전에 K리그 25년 역사상 최다인 5만5천397명의 구름관중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과연 이만수 열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수원 삼성을 라이벌로 정하고 끊임없이 입씨름을 벌이면서 팬들의 관심을 끌어 올리고 있다. ‘귀네슈 효과’인지, 지난 4월 8일 서울 수원전에 K리그 25년 역사상 최다인 5만5천397명의 구름관중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과연 이만수 열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수원 삼성을 라이벌로 정하고 끊임없이 입씨름을 벌이면서 팬들의 관심을 끌어 올리고 있다. ‘귀네슈 효과’인지, 지난 4월 8일 서울 수원전에 K리그 25년 역사상 최다인 5만5천397명의 구름관중이 몰려들었다.

### 프로와 팬



## 염소들의 무한 놀이터

아이들 노는 모습을 자세히 살펴본 독자들 많을 것이다. 처음 본 것, 신기한 것만 보면 다가만져보고 올라타려고 한다. 시도 때도 없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더니 어느 틈에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울어제낀다. 한시도 한 눈팔면 안된다는 말, 실감난다. 피나고 멍덜고 다쳐 꿰매면서 자라는 것 같다. 늘 때도 마찬가지다.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사회생활과 기초체력을 키운다. 즉 의무와 책임감 그리고 규율과 평등, 희생정신 등 생애를 살아가기 위한 기초적이 모든 것을 그 시기에 놀이를 통해 깨우치게 되는 것이다.

동물들은 어떨까. 원숭이나 초식동물 같은 상당수 무리 동물들의 경우 어느 정도 머리 품에서 벗어나 움직일 때가 되면 새끼들끼리 웅기종기 모여서 낮 시간을 보낸다. 자연스럽게 어미들

도 여유를 찾는다. 아이들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낸 뒤 한숨 돌리는 엄마들과 비슷하다.

신기한 걸 보면 그걸 꼭 만져보고 별다른 위험을 느끼지 못하면 놀임감으로 활용하는 것도 낫았다. 가령 사육장 한 가운데 미처 치우지 못한 흙더미거나 나무 더미가 있으면 그 위에 올라가거나 파고 들어가기를 좋아한다. 그래서인지 될 수 있으면 운동장을 어지럽혀주는 게 오히려 동물 새끼들의 성장에 훨씬 좋은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염소 새끼들이 새로운 놀임감을 찾았다. 얼룩말 우리에 우연히 정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터춤패같은 얼룩말 이모의 등에서 미끄러질 놀이까지 즐길 정도가 됐다.

◇최종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 의미있는 봉사활동 하려면 구청 보다는 복지관으로

장애우와 노인들을 책임지고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우리 복지관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돌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필요해 수시로 자원봉사자를 구하지만 자원봉사를 지원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다른 곳의 한 사회복지관의 경우 초등학교 정도 나이의 정신지체 아동 15명을 선생님이 한 분이 모두 담당하고 있다. 수업이나 기타 보조 활동에 도움을 줄 자원봉사자를 1년 내내 구하고 있지만 선택 내서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그와 정반대로 공공서같은 일반 공공기관에서 학생들이 봄비지만 그들에게 줄 일거리가 없어서 복사나 잔심부름 시키는게 전 부라고 하니 대조적이다.

아이들이 여전히 시간때우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 아닌가. 봉사활동을 통한 교훈이나 어려운 이를 도왔을 때의 뿌듯함을 아이들은 전혀 느끼지 못한다. 장애 노인이나 장애 아동들을 돌보는 일보다 도서관 책 정리나 더 편하다는 것이 아이들의 생각일 것이다.

점수를 위한 무의미한 봉사활동은 아이들에게 점수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남기지 못한다.

어차피 주어진 봉사활동 시간을 채워야만 한다면 가슴에 평생에 남을 제대로 된 봉사해 보도록 봉사활동 종류를 세분화해 똑같은 시간을 활동해도 그것을 인정해주는 기준을 달리했으면 한다.

▲김규근·광주시 서구 샘촌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 NGO 칼럼

문채주



기후 변화가 지구와 인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가 비판적으로 나오고 있다. 유엔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가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폭 감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IPCC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보고서에서 인류의 가장 큰 위협으로 기후변화를 지목하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인류의 재앙을 경고했다면 세 번째 보고서는 이를 막기 위한 실천적 방향과 그 시한을 제시했다. 우리가 주목하여야 하는 것은 온실가

고, 이탈리아의 수상 도시 베네치아는 금세기 말이면 물밑으로 0.5미터 이상이나 더 깊게 세계 도처에서 관광객이 몰려들었던 산마르코 광장 등 수 백년 된 고건축물들은 모두 물에 잠기게 된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환경부가 공개한 기후변화에 의한 한반도 영향 예측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평균 해수면 상승은 연간 최고 0.6cm로 2100년에는 최고 59cm 높아져 기존의 연안 지역 대부분이 침수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 연안은 지난 34년간 7.8cm 상승했고 제주 연안은 매년 0.5cm씩 상승, 2006년 기준으로 지난 43년간 21.9cm 높

## 해수면 상승,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스에 의한 지구온난화와 이로 인한 해수면의 상승이다. 해수면의 상승은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을 파괴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해안 및 저지대의 침수현상과 서남해안의 수많은 무인도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에서 최근 발표한 기후 변화와 세계 유산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유네스코에 등록된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830곳이 오는 2100년까지 사라지거나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상당수가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파괴될 것으로 위기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자연유산에서 대표적인 것이 1981년 세계 유산으로 등록된 세계 최대 대보초인 호주의 그레이트배리어리프는 하얗게 변하는 표백화 현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미 최대의 선사시대 유적지인 페루의 찬찬 지역이 온난화에 가장 취약하

아졌다. 해수면 온도는 1968년부터 1997년까지 30년간 동해는 0.62도, 남해는 0.61도, 서해는 0.88도 상승하였다.

IPCC가 경고하였듯이 우리나라 해안 지역도 해수면의 상승에 의한 피해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관련 산업의 의의를 높이고, 국민의 해양의식을 고취시키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위로할 목적으로 1986년 제정된 바다의 날이 돌아온다.

올해에도 각종 단체나 많은 관련기관에서는 100건 이상의 많은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바닷가 대청소, 기념마라톤 등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로 그치지 말고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예측하고 대비책을 논하는 토론의 장도 함께 개최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느끼는 것은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광주·전남북북연합 기후변화 위원장〉

## 엘리베이터내 애완견 배설물 주인이 꼭 치워야

퇴근해 집 앞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고약한 냄새가 났다. 애완견 강아지의 배설물 때문이었다.

무질서하게 붙어 있는 광고용 전단지나 피자 봉투는 대충 치우면 된다고 하지만 개나 고양이의 배설물 등이 떨어져 있거나 아예 그 안에서 불일을 봤을 때는 다르다. 고약한 냄새가 장시간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 머물러 있는 탓에 견디기 힘들다.

엘리베이터는 폐쇄된 공간이라 관리가 엉망인 경우 각종 병원 박식지로 전락할 수 있

고 피해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아파트나 빌딩 등에 있는 관리인이 있지만 이들이 쓰레기를 치워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엘리베이터에 애완견 배설물을 떨어뜨리거나 그 안에서 용변을 보도록 하는 것은 피해야 할 사항이다.

주인의식을 갖고 청결한 엘리베이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이성혜·광주시 서구 벽진동